

우리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헌법을 제정해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한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법질서로서 국가의 모든 법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규범이다. 헌법에는 국가의 이념과 국가운영의 방향,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국가의 기본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 등이 담겨 있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국민주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면서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법치국가원리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헌법은 국가공통체에 있어서 최고의 법질서란 점에서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하고, 국가 내의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 조정과 타협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구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대한의 보장을 의미할 뿐이다.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공존하는 자유이고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도 1948년 제정돼 60여 년간 9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온갖 우



불자 세상보기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헌법의 가치 존중돼야 한다

여곡절을 경험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했던 우리에게 남북분단이란 시련 속에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 헌법은 그 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헌법 개정에서 국민의 의지는 배제됐지만 국민의 자력은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개정됐다.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담은 헌법이기에 과거의 헌법과는 달리 기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다. 헌법의 수호를 위한 헌법

재판소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밟고 합의를 도출시켜 만든 문서이다. 헌법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문서로서 국민의 존재와 국가의 존립에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근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정치적 도구화해 오·남용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것이고 국가의 존립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물론 헌법에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민주헌법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헌법수호의지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붓물 터져 나오듯이 여러 헌법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중에 가장 첨예화되는 것이 표현의 자

유와 관련된 것이다. 정보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수단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보장될 수는 없다. 즉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제한이 따른다. 그래서 헌법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규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규범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규범이다. 그런 점에 입각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또한 이는 조금의 헌법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국민의 개정의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헌법은 민주와 법치에 기반하고 세계화와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내용으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 개정되어야 한다.

60년이 넘는 헌법의 역사 속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NGO는 사전적으로 비정부 기구 혹은 비정부 단체, 시민사회단체라고 불린다. 시민사회단체라고도 불리는 단체는 19세기 중반부터 반노예제, 여성인권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되기 시작해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NGO활동이 시작됐다. 초창기 단체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환경, 정치사회, 경제정의, 교육, 여성, 종교, 학술 언론 등 다양한 운동영역이 개발됐다.



사부대중 갈럼

묘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종단·시민단체는 상생관계다

계에 전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 더프리미스, 로터스월드, JTS등의 국제개발기구 단체 등이 그 모델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다양하다.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각종 정책홍보, 상담 등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대중의 지지를 구하고 모금 활동도 하며, 자계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문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불교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본다.

종단은 불교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려 하고 있다. 종단이라는 큰 조직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 간의 관계가 항상 순탄하지는 않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중 종단에 대해 쓴 말을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때문에 종단과 단체와의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단에서는 불교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10년 째 진행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시에는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재단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했지만, 2008년부터는 불교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한 사람상태문화가이드북 제작 사업은 선운사를 모델로 가

이드북이 제작되고, 현재 전국 사찰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관련 운동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기에 남북화해 및 교류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남북평화의 끈이 끊기지 않도록 도왔다.

종단에서는 매년 '불교시민사회단체 워크숍'을 열어 불교시민사회단체와 종단이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높이고 단체와 종단, 단체와 단체 사이에 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연초와 연말에는 단체와의 신년회,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소통의 자리를 열고 있다.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서로 경쟁을 하는 사이가 아니다.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 받아 실천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다.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함께 상생을 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종단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종단의 미처 나서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해, 종단이 놓칠 수 있는 것을 챙겨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실천이 필요하다.

[독자] 4대강 개발 추진 못하면 국민 피해

4대강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일 일부 종교계와 야당에서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단순회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이고 피상적인 이야기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이 반대 일색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범람하는 강물을 가두어 조절하고, 인공적인 습

지를 조성하여 오염 부하를 오수처리장과 자연정화능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강물이 구간별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치수(治水) 사업인데,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와 일부 종교계의 편향된 정치논리에 의하여 원만히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자의 선택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실제적인 시행 방법과 방안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지만 경부고속

도로를 건설할 때 별별 반대 의견만 내세웠지 합리적인 의견은 없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1970~1980년대 경제부흥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을 정부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로써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한다. 국책사업을 일부 반대 여론의 큰 목소리에 매몰되어 추진할 수가 없다면 그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 야당에서 도 망리당락인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기술해 보면, 전투함 함장이 작전 지역의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있고 첨단 해도(海圖)와 정밀한 항해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좌초(坐礁라든지) 인위적인 사고는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장병들의 국토방위를 위한 희생과 유가족들의 가슴을 두 번 찢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천안함 유족 운창자 여사의 용기와 본보기에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한다.

신현덕/부산 부곡동

사설

영담 스님의 해명 설득력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내 종교인 도지원위원회의 '4대강 사업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국민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불교사 주지 성타 스님에 대한 공적 사퇴 요구가 거세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등이 잇따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영담 스님과 성타 스님의 공적 사퇴를 촉구했다. 총무위원장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 15일에는 출근하는 영담 스님과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의 실무자들이 맞닥뜨리는 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12일 영담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대국민 설득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평통 종교지원위원회 명의의 호소문에는 "이미 4대강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공정을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서..."라고 돼 있어 영담 스님이 말하는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민적 합의를 말하려면 공사 중지가 전제되어

야 하는데,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민주평통자문회의는 그 기능이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치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어느 기구이든지 그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운영되면 큰 혼란을 가져온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법을 넘어선 권한행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권력이 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면 사회는 혼돈과 공포로 뒤덮인다.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가 4대강 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이 규정한 기능을 넘어선 탈법이라는 불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한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별개로 영담 스님은 평통자문회의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말하려면 공사 중지가 전제되어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기대 크다

여러 불교단체들이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결성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요 단체들의 대표들이 13일 한 자리에 모여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논의의 통해 네트워크의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종단 안팎의,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소통의 자리를 열고 있다.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서로 경쟁을 하는 사이가 아니다.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 받아 실천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다.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함께 상생을 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종단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종단의 미처 나서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해, 종단이 놓칠 수 있는 것을 챙겨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실천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 곧 반정부라고 등식화하는 오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정부와 기업에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을 반정부·반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판이 없다면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비판을 하면 반대자로 몰아 비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퇴행적인 처사이다. 덧붙여, 비판은 말과 글로써 드러나는데, 이를 불은 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기도 하다.

발전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 부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한 사회의 필수 영역이다. 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해가는 역할을 하며, 권력을 감시 비판함으로써 사회의 건전성을 높인다. 생활인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치·경제·교육·문화·종교·언론 등 사회의 각 영역에 간섭함으로써 더 살맛나는 세상을 제시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시민사회의 활동이 위축됐다. 불교 안팎의 상황이 불교계 시민사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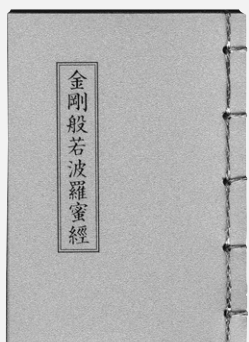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외사출 연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투데이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소영림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외 요령을 준수한다

불경 금책, 금명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가천도장량장가친의식식사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기력이 저하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항로 (대) 26×16×16cm 155,000원 월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특별한 마음을 이룩하여 주면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매를씨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온열돌기 의료기인종 의료용전자개발시기 전기용량 안정성중, LIG 배상보험 가입 전지배 장애심할품 전지배 환경인증 실용성안출원



원격의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저로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옥각들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의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정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